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2일 오전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합의문에 서명한 후 실무 담당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시·도청 기능 유지 동의에 급물살 민간 주도·지방분권 노력 등 담아

### 광주·전남 행정통합 합의배경·내용

### 광주시 명분·전남도 실리 챙겨 군공항 등 갈등 해소에도 도움

광주와 전남도가 막판 협상력을 발휘하면서 '난제'인 행정통합 논의의 장을 열었다. 시간이 지체되기는 했으나 치열한 협의 끝에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는 점은 높이 평가 받을 만하다. 이는 군공항 이전 등 현안 해결과 함께 공동대처가 시급한 문제인 정부의 지역 균형 뉴딜 등 초광역권 사업 구성, 대규모 공동프로젝트 발굴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도 간 갈등이 불거지면 현안 논의마저 중단되곤 했던 과거의 구태를 벗어났다든 점도 이번 합의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치열한 물밑협상...명분과 실리 모두 챙긴 이 시장과 김 지사=이 시장과 김 지사는 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 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지난 9월 10일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이 시장의 '제안' 후 53일 만이다. 이 시장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김 지사는 단계적 통합, 부산·울산·경남이 추진중인 메가시티와 같은 경제협력공동체 등을 제안하며 맞섰다.

합의문에 담긴 ▲민간 중심 ▲단계로 광주전남연구원의 연구 용역 수행 ▲2단계로 용역 1년, 검토·준비 6개월 후 시·도 통합 공론화위원회 구성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제도 개선 노력 등은 모두 김 지사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막판 행정통합 시 통합청사 위치를 두고 이견을 보였으나 지난 주말 시정사와 도청사의 기능을 유지하는데 양측이 극적으로 동의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로써 행정통합은 사실상 2022년 치러지는 민선 8기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주시는 거대 담론과 방향, 전남도는 구체적인 내용과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양측이 '진솔한' 협상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양보하는 과정을 겪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현안 논의는 보다 수준높게 진행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향후 1년간 행정통합, 경제협력공동체,

상생협력 강화 등을 두고 타당성 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 과정 자체가 양측의 미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통합, 경제협력공동체, 상생협력 강화 등 두고 1년간 연구=대구·경북, 부·울·경 등이 행정통합, 메가시티 등을 추진한 배경은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인구·경제 집중을 견제하고 쇠락하는 비수도권의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지자체는 '하나'의 목소리로 정부에 특별법 제정, 다양한 행·재정적인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광주·전남은 늦은 감은 있으나 통합 논의에 첫발을 내딛은 만큼 지역정치권과 힘을 모아 국가불균형 시정을 위해 초광역권 사업, 초대형 국책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합 논의 자체에 매몰되기보다는 행정통합, 경제협력공동체, 상생협력 강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호 이익이 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전남간공항 및 군공항 이전, 나주 고형폐기물 연료(SRF) 열병합발전소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이나 전남 의과대 설립 등 양측에 도움이 되는 현안은 상호 협조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 쏠린 눈="사할 결고 지역 미래 담겠다"=이 시장과 김 지사의 합의로 시·도 통합 밑그림을 구상하게 된 광주전남연구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연구원은 우선 연구 계획 수립을 위해 시·도 의견 수렴, 조직 정비 등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용역의 무게감이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국내외 행정·조직·정책 분야 전문가들도 연구진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민중이다.

용역에는 행정통합을 포함한 경제협력공동체, 현 상황 유지 및 상생협력 강화 등 여러 대안의 장단점, 기대 효과, 방식, 시기, 시·도민 여론 수렴 절차 등을 제시하는 게 과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은 "용역에 착수하려면 시·도와 합동으로 연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각각의 요구와 연구원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다"며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연구원의 사활을 걸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오늘 광주 찾는 정세균 총리, 5·18묘지 참배 등 광폭 행보

###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 참석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환담

정세균(사진) 국무총리가 3일 광주를 찾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 서구 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서 열리는 '제91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항일운동의 의미를 되새긴다. 정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대권 행보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 총리는 코로나19 대응 등의 바쁜 일정에도 이날 정부 기념식 참석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시·도지사와 환담 등 광폭행보를 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잡심으로 꼽히는 정 총리가 최근 민생·경제투어에 나서고, 국회 내 정 총리의



최근 그룹이 활동을 본격화하는 등 외연 확장에 나서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광주에 도착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관에서 이 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등과 함께 환담을 나눈다. 이 자리에서 지역 현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각 부처를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에서 리드를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5·18 역사왜곡 처벌법 등 5·18 관련 법안 처리, 광주형 일자리 주거 지원 등을 정 총리에게 건

의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정 총리에게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한전공대 지원 특별법 제정 등과 함께 해상풍력단지 조성, 전남권 의대 설립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지역균형 뉴딜사업 공모 시 주민 선정 기준에 국가균형지수, 지역소멸지수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도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제 91주년 학생독립운동 정부기념식'은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감염위험으로 정세균 국무총리 등 정부인사 각계대표, 독립유공자 및 유족,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학생들이 주도했던 항일운동이라는 점에서 이번 기념식에서 만세삼창은 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한 생존 애국지사(이석규 씨)와 후배 학생들의 선창으로 다 함께 외치고, 끝으로 '학생의 날' 노래를 제창하며 기념식이 마무리된다. /최권일 기자 cki@/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국민의힘 '서진정책' 속도...김종인 위원장 일주일만에 광주·전남행

### 5개 구청장·22개 시장군수 만남

국민의힘의 서진(西進)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광주에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연 데 이어 일주일만인 3일 김종인(사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소속 국회의원 10여 명이 다시 광주를 찾는다. 이는 민주당 텃밭인 호남을 지속적으로 공략해 보수 정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주력하면서 짧게는 내년 4월 재보선, 길게는 내후년 대선까지 염두에 둔 포석으로 분석된다.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광주학생항일운동' 기념일을 맞아 광주를 방문한다. 이날 정운천·하태경·장제원·윤영석·이재익·김은혜 의원 등 '호남 동행 국회의원' 10여명과 김 위원장과 함께 광주를 방문한다.

김 위원장은 1929년 당시 독립운동의 발상지가 됐던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제91주년 광주학생독립



운동 기념식에 참석, 항일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기념식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광주지역 5개 구청장들을 만나 정책협의회를 진행한다. 기념식이 끝난 뒤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업계 정책건의 및 애로사항을 들은 뒤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오후에는 전남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도청 왕인실에서 전남지역 22개 시군 자치단체장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각 자치구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이 호남을 찾은 것은 다섯번째이다. 지난달 29일엔

의원 20여 명과 함께 전북 전주를 찾아 현지 14개 지자체장들과 정책 협의의 간담회를 열고 예산 수위를 점검한 바 있다.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현 지 지자체장 14명이 모두 간담회에 참석했다.

앞서 일주일 전인 지난달 27일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 의장, 추경호 예결위 간사 등이 광주에서 광주와 전남·전북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지난 8월엔 김 위원장이 보수정당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5·18 추모탑 앞에서 무릎 꿇고 당의 소극적 대응과 일부 망언에 대해 사죄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또 호남 출신 정양석 전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고,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 당선권 20위 이내에 호남 출신 5명을 추천하겠다는 방안을 내놓는 등 호남 끌어안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민주당 당헌 바뀐 서울·부산시장 후보 낸다...당원투표 86.6% 찬성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3일 "권리당원투표(10월 31~11월 1일)를 진행한 결과, 86.64%가 당헌 개정 및 재보선 공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전체 권리당원 80만3959명 가운데 21만1804명(26.35%)이 투표에 참여해 86.64%가 찬성했고 13.36%가 반대했다. 지난 3월 비례연설회장 참여 투표(투표율 30%, 찬성률 74.1%), 5월 더불어민주당 합당 투표(투표율 22.5%, 찬성률 84.1%) 당시보다 높은 찬성률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86.6%라는 압도적 찬성률은 재보선에서 공천해야 한다는 당원의 의지 표출"이라며 "재보선에서 후보를 공천해 시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책임정치에 더 부합한다는 지도부 결단에 대한 전폭적 지지"라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부산 시민, 성추문 피해 여성에게 거듭 사과한 뒤 "유권자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다.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경선으로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 유권자 앞에 세울 것"이라고 했다.

이번 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체제 때 정치 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무공천' 원칙은 5년 만에 폐기되게 됐다. 이 당헌을 원칙대로 적용한다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 의혹 등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내년 4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어렵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서울·부산에서의 공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당의 지배적인 기류였고,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후

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도리라는 생각에 이르렀다"며 공천 방침을 밝혔다. 직후 현행 당헌에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공천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당원 투표에 부쳤다.

투표를 통해 당원들의 여론이 확인됨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 다음날 중앙위원회를 거쳐 속전속결로 당헌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곧바로 중앙당 공식선거후보자 검증위, 선거기획단 구성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돌입한다.

야권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당원들 투표만 가지고 뒤집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 "후보를 공천하려면 지도부가 박원순, 오거돈 두 사람의 성범죄에 대해 광화문에서 석고대죄하라"(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며 거세게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062)362-3336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6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진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